

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공기 속 물에 스스로 녹는 고체, 조해(Deliquescence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0105/>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장마철에 제습제 통을 열어 보면 처음에는 하얀 알갱이만 가득하던 통 바닥에 어느새 물이 고여 있습니다. 누가 물을 부은 것도 아닌데 알갱이는 점점 줄어들고, 그 자리를 맑은 액체가 채웁니다. 공기 속에 떠 있던 수증기를 고체가 스스로 빨아들이고, 그 물에 자기 몸까지 녹여 버린 것입니다. 이 현상이 바로 ‘조해(Deliquescence)’입니다. 조해란 쉽게 말해 ‘고체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다가, 흡수한 물에 스스로 녹아 용액이 되는 현상’을 의미합니다. 물기를 머금은 성질은 많은 물질에 있지만, 아예 녹아서 액체가 될 만큼 강하게 물을 끌어당기는 물질은 따로 구별해 부릅니다. 본 자료에서는 조해가 무엇이고 흡습성과 어떻게 다른지부터, 고체가 녹기 시작하는 원리와 기준이 되는 습도, 생활 속에서 만나는 조해성 물질, 그리고 이를 활용하고 다룰 때의 주의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공기 속 물에 스스로 녹는 고체, 조해의 원리와 쓰임 조해란 무엇인가 조해를 이해하려면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성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(1) 흡습성은 물기를 머금은 성질이다 흡습성(Hygroscopy)은 물질이 주변 공기에서 물 분자를 끌어당겨 붙잡아 두는 성질입니다.